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부산일보

정치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제 23288 호 5

내년 부산시장 보선, 출마예정자들 SNS는 벌써 '후끈'

이진복·장재원·이연주·박민식 등
미래통합당 후보군 중심 활발
페이스북·유튜브 정치 공 들여
여권선 박재호 의원 적극 나서
여론 파악 위한 '몰름기' 분석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SNS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페이스북 화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군에 오른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글들을 쏟아내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서는가 하면 아이디어를 짜낸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올리며 친근한 이미지 쌓기에 나서고 있다.

선거까지 기간이 생략된 탓에 아직 변수도 적지 않아 본격 선거전에 나서기 전 SNS에서 몸풀기에 나선 형국이다.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점도 후보들이 SNS로 물러드는 또 다른 배경이다.

미래통합당 후보군의 SNS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그중 이진복 전 의원이 최근 SNS 활동 비중을 높였다. 이 전 의원

은 최근 내아버 밴드 '부산 그리고 이진복과 함께'를 개설, 1주일이 만에 멤버 수 400명을 넘겼다. 이 밴드는 비교적 깨끗한 만큼 멤버 상당수가 '진성' 지지자라는 점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주목된다.

일부 멤버는 이 전 의원을 소개하는 '이진복이 누구?' 카드 뉴스, 트로트 가요 '편이'를 활용한 '진복' 이미지 카드 등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밴드 개설에 이어 유튜브 방송에도 도전하기로 결정, 첫 유튜브 영상 촬영도 했다.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계정 이름, 영상 콘텐츠 등 후속 작업을 마친 후 실제 방송에 나서는 계획이다. '이진복 TV' '진 TV' 등 여러 이름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후보이다. 이 전 의원은 '첫 영상을 찍었는데 판매 액할 만한 수준'에서 앞으로 특정한 장소에 직접 나가 라이브 영상을 찍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며 '오프라인 활동으로 닿지 못하는 시민이나 지역이 지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SNS는 오프라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NS 활동 강제로는 장재원 의원과 이연주 전 의원이 꼽힌다. 장 의원은 최근 SNS-3인방 한 번쯤은 글을 올릴 정도로 페이스북 장치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2만 4000명을 넘겼다. 그의 계정은 최근 '후마에 법무부 장관이 아랍의 신원지 총회장 구속을 전후해서 장 의원을 언급하자 장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 '허접한 기술'이라고 맞받아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그의 유튜브 계정 '장재원 TV'도 구독

자가 급상승 중이다. 한 달여 전부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 중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주요 발언들을 다시 올리는 디시 보는 사이이다. 발언 시리즈를 통해 7만 8천이던 구독자 수가 11만 명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 중 '후마에 장관, 용이세요' 제목의 콘텐츠 조회 수가 65만 회에 달하는 등 그의 유튜브 방송 인기 상승에는 후 장관이 '일등 공신(?)'이다.

여러 후보 중 유튜브 방송 최강자는 단연 이연주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이 운영한 '이연주 TV' 구독자 수는 33만 3000명으로 전체 정치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 전 의원은 '탄핵의 대동명 국회 개원 연설 논평'이나 '겨우새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정치 이슈도 다뤄지만 최근 들어 부산 관련 콘텐츠를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부산 지역 특우 피해를 다룬 '부산 지자도 잘 살면 뭐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후보의 경우 개인적으로 시장 출마 의지는 강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SNS로 시민 반응을 먼저 살핀 뒤 출마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kim1@busan.com

일 페이스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 전 의원이 검찰 출신 당계 패이스북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검찰 개혁'으로 법무장관개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행동은 검사장 관련 수사에 대한 문제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SNS 활동이 눈에 띄는 인물은 박재호 의원 정도로 그는 가덕신공항 유치 관련 활동을 연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자기 시장 후보군의 SNS 활동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부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기 시장 후보가 많다지만 지금까지 전, 현 국회의원들이 데뷔함으로써 그들만 자여구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 SNS로 인지도 높이고 좋은 이미지도 쌓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기 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민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연

부산일보, 8월 5일, 5면 머리기사

부산일보 <내년 부산시장 보선, 출마예정자들 SNS는 벌써 '후끈'>(8/5, 5면) 기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SNS 활동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치인들이 온라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은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 미래통합당 4명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쏠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왜 이들 5명의 온라인 활동만 소개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소개된 5명의 정치인들에게 할애한 비중과 내용도 달라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각 정치인을 언급한 '행' 수를 세어봤습니다(<표1>).

이진복 (미래통합당)	장제원 (미래통합당)	이연주 (미래통합당)	박민식 (미래통합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27행	22행	13행	10행	4행

〈표 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치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으로 27행에 걸쳐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으로는 최근 개설한 네이버 밴드와 아직 개설 하지도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진복 전 의원의 네이버 밴드가 비공개 계정임에도 멤버 수가 400명을 넘겼다며 이 전 의원 지지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 ‘도전’ 소식과 함께 채널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에는 이미 활발하게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연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SNS 활동에 나선 이 전 의원의 행보를 더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은 특정 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